

우리나라 손상 발생과 변화를 한눈에,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 발간

- 2024년 손상 경험 약 390만 명, 최근 2년 연속 증가
- 손상 입원, 지난 10년간 운수사고는 41.7% 줄고 추락·낙상은 56.1% 늘어
- 고령층일수록 손상 입원을 높고, 손상 후 장애·사망 부담도 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우리나라 주요 손상 발생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한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을 10월 29일(목)에 발간한다.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은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 요인 및 10년간의 손상 양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 분석 자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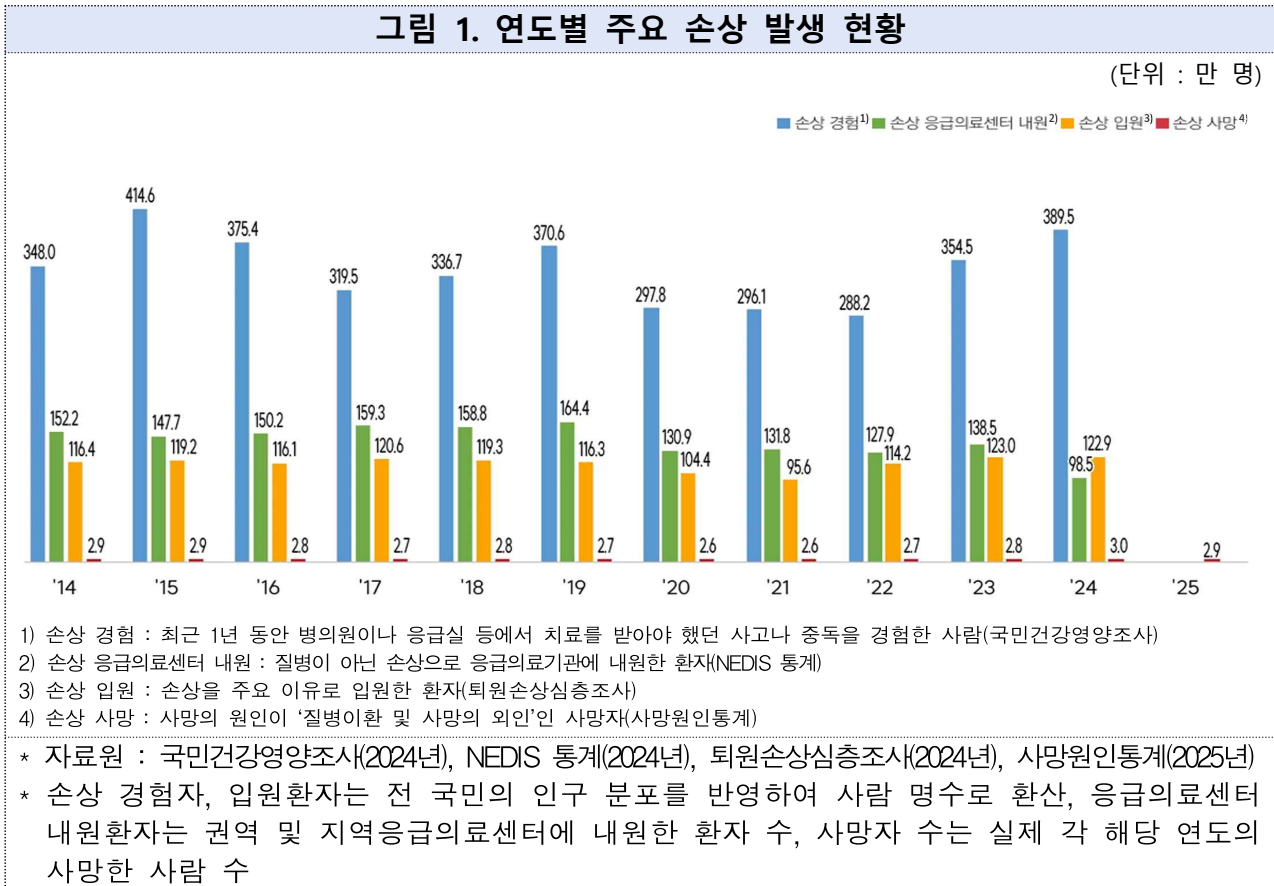
자료명	분석연도	생산기관
퇴원손상심층조사	2014~2024년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15~2025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기반중증외상조사	2015~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24년	질병관리청
사망원인통계	2014~2025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통계	2014~2024년	국립중앙의료원

특히 올해 발간하는 자료에는 자해·자살 환자의 중독물질 사용 분포, 화상 환자의 손상 부위 분포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손상 발생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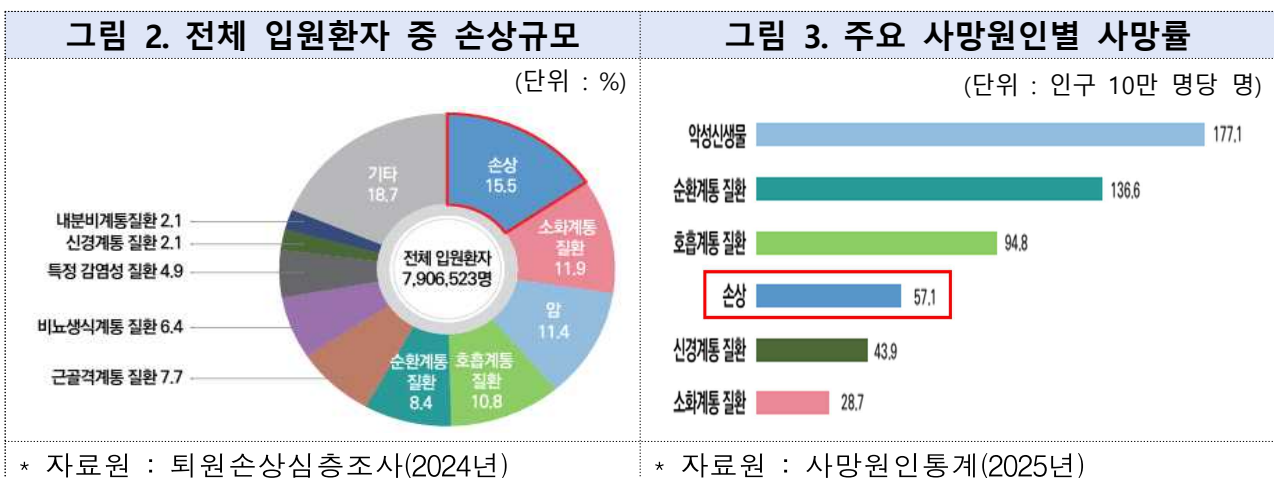
1. 2024년 손상 경험자 약 390만 명, 최근 2년 연속 증가

2024년 손상 경험자는 390만 명,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99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특히 손상 경험자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하였으며('22년 288만 명, '23년 355만 명), 전년('23년) 대비 9.9% 증가하였다(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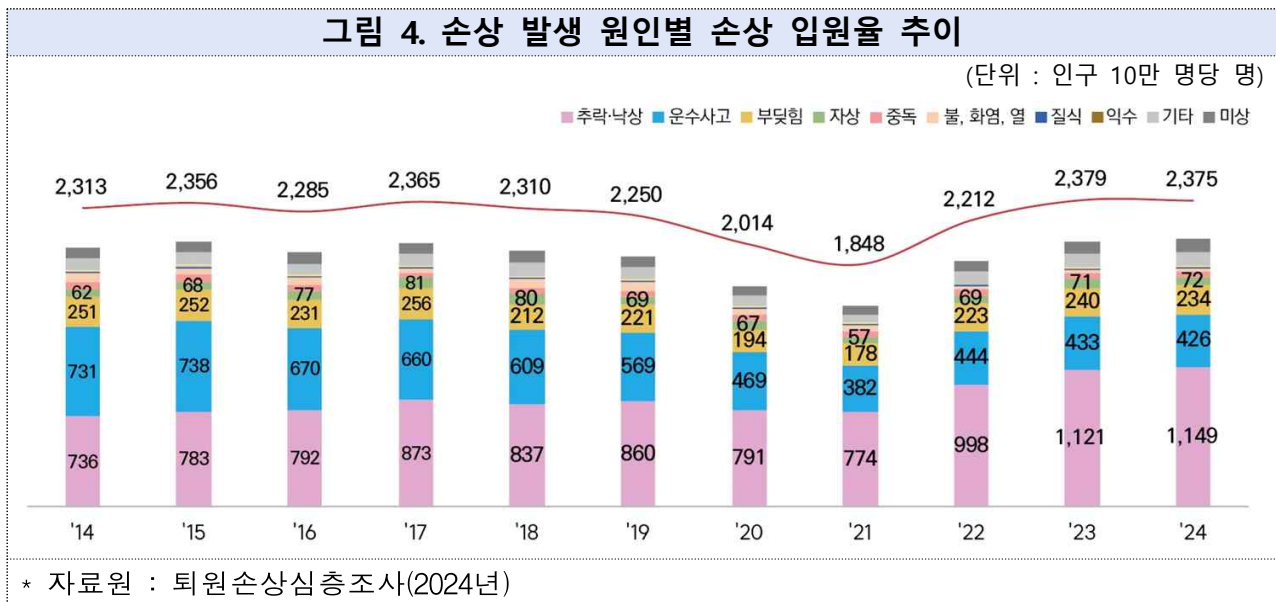


2024년 전체 입원환자 중 손상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그림 2 참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2025년 인구 10만 명당 57.1명으로 암(177.1명), 순환계통 질환(136.6명), 호흡계통 질환(94.8명)에 이어 주요 사망원인 4위로 나타났다(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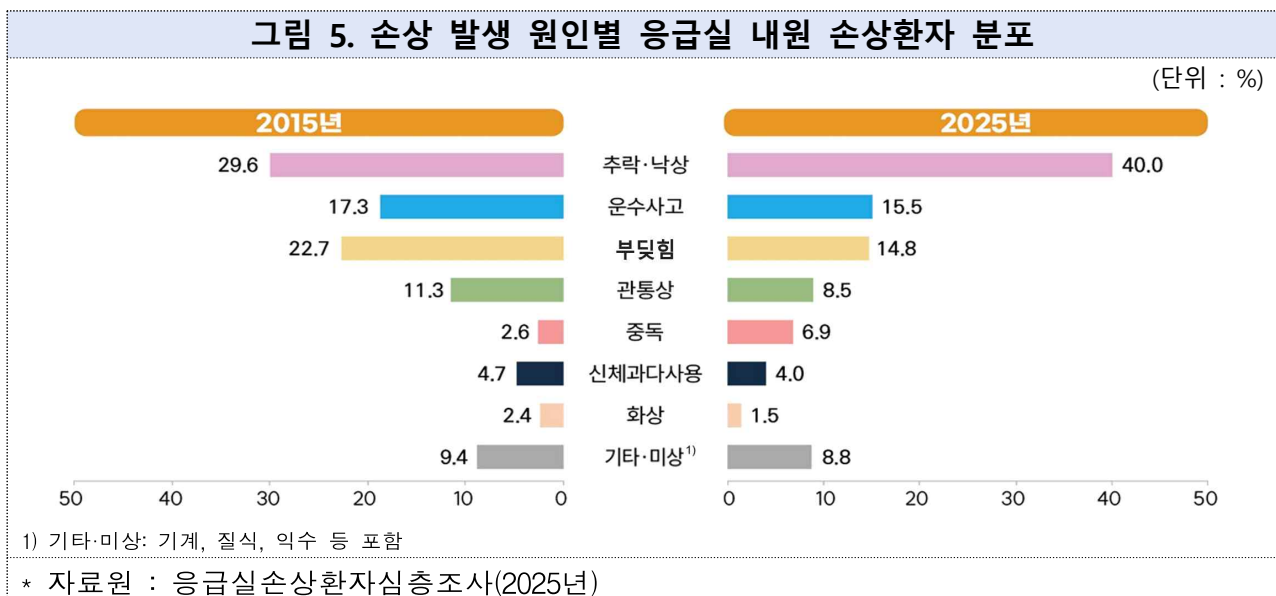


2. 손상 양상 변화, 운수사고는 줄고 추락·낙상은 늘어

지난 10년간 손상의 주요 원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입원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운수사고는 2014년 인구 10만 명당 731명에서 2024년 426명으로 41.7% 감소한 반면, 추락·낙상은 인구 10만 명당 736명에서 1,149명으로 56.1% 증가하였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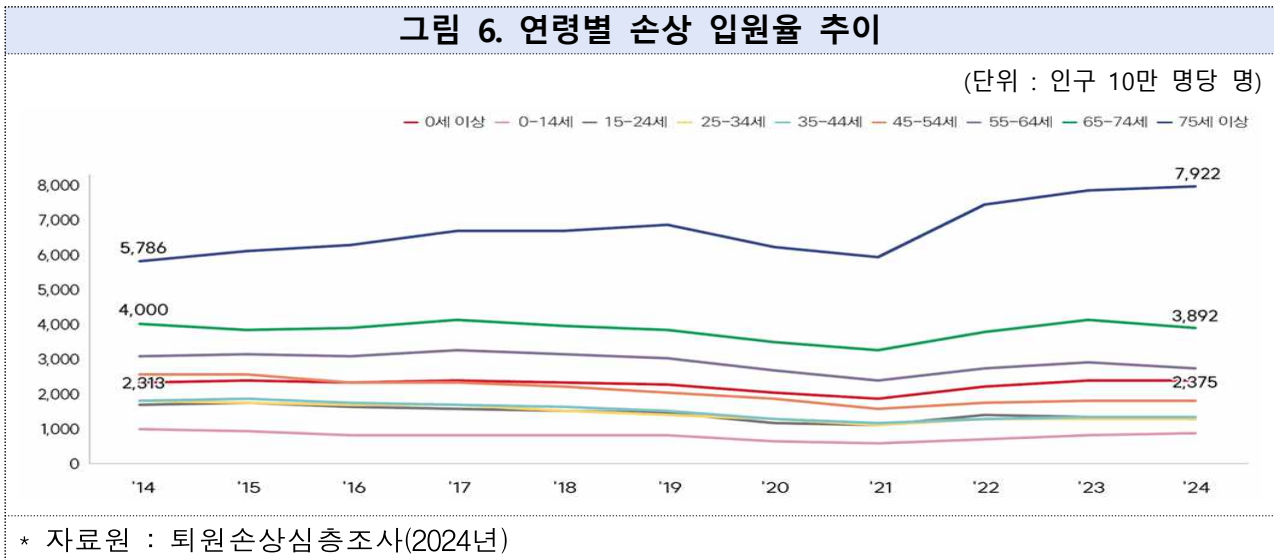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 환자 중 운수사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17.3%에서 2025년 15.5%로 감소(1.8%p↓)하였고, 추락·낙상은 29.6%에서 40.0%로 증가(10.4%p↑)하였다(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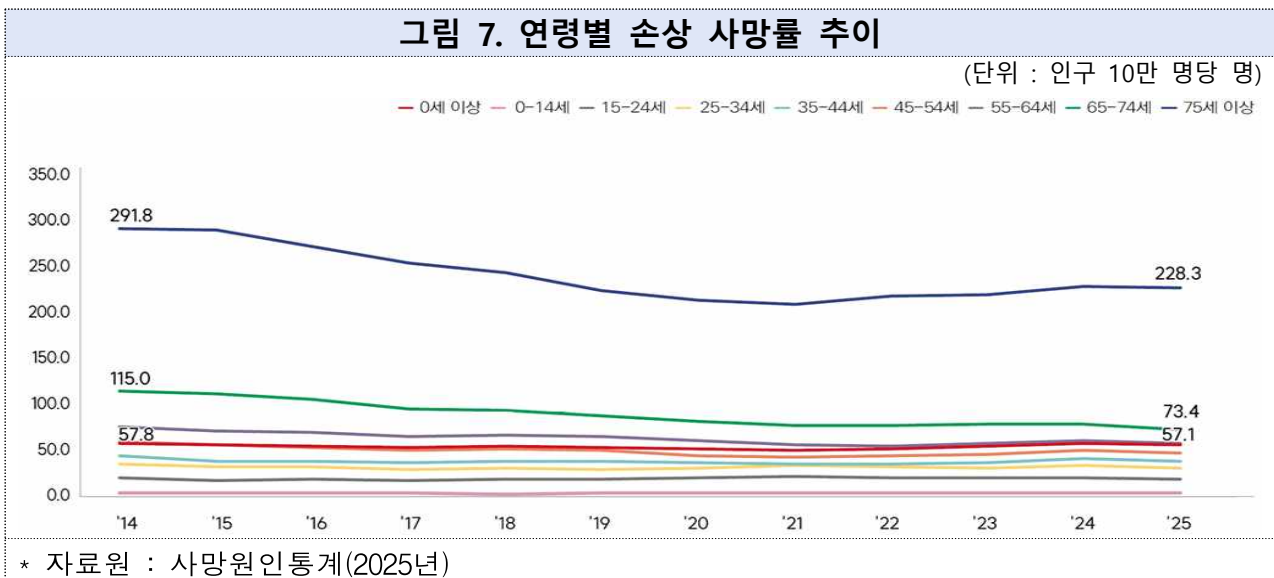


3. 고령층에서 손상 입원율·사망률 높아

손상 입원율은 2014년 인구 10만 명당 2,313명에서 2024년 2,375명으로 증가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6 참조). 특히 75세 이상 손상 입원율은 2014년 인구 10만 명당 5,786명에서 2024년 인구 10만 명당 7,922명으로 36.9% 증가하였다.



반면, 2025년 손상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1명)은 2014년(인구 10만 명당 57.8명)보다 감소하였다(그림 7 참조). 75세 이상(인구 10만 명당 228.3명) 연령의 손상 사망률도 2014년(인구 10만 명당 291.8명)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고령층에서는 중증외상 발생 이후 장애와 사망에 대한 부담도 컸다. 운수 사고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발생(53.1%)과 장애율(84.6%), 치명률(66.0%)이 모두 높았고(그림 8 참조), 추락·낙상의 발생(31.2%)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으나 장애율은 86.0%, 치명률은 67.4%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참조). 이는 노인의 추락·낙상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8. 연령별 운수사고 중증외상환자의 장애율 및 치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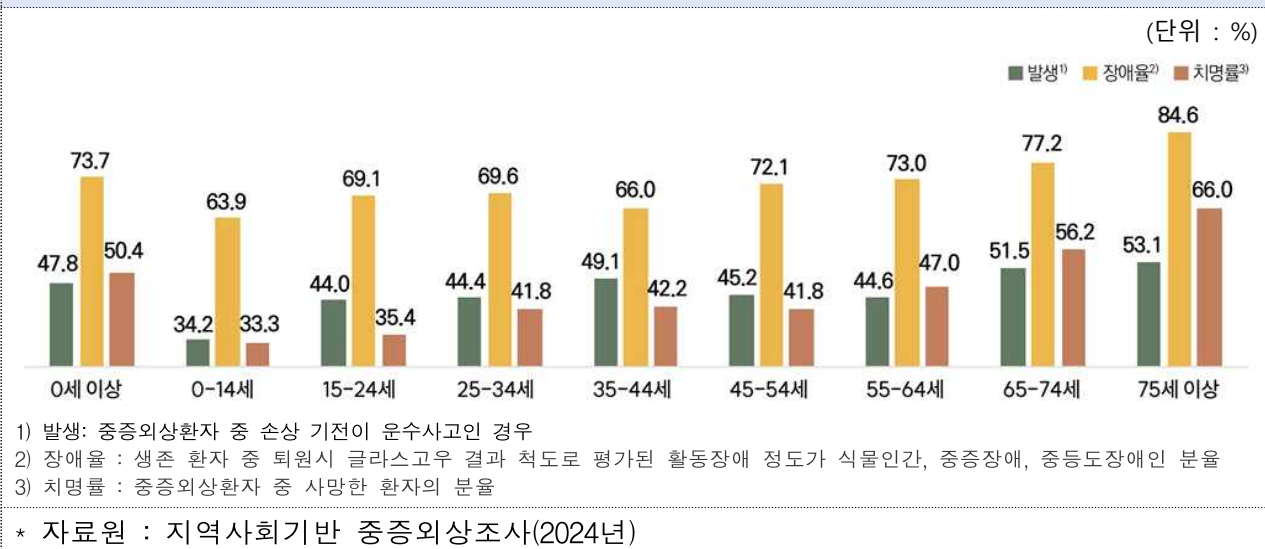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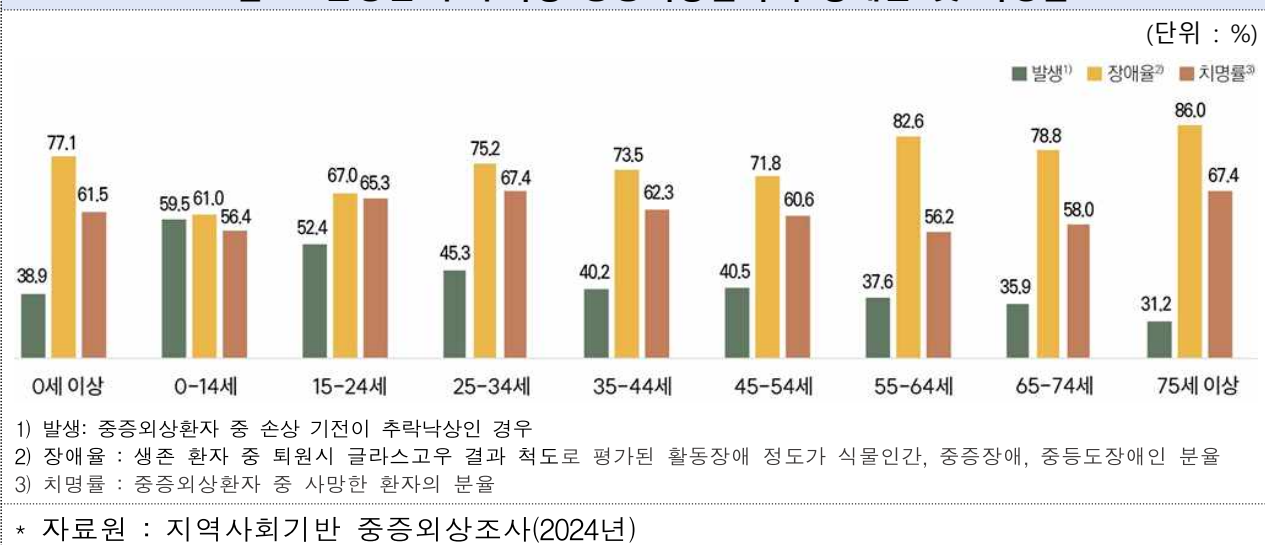


그림 9. 연령별 추락·낙상 중증외상환자의 장애율 및 치명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경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고령층의 추락·낙상의 부담이 큰 만큼 연령별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손상조사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과 취약 계층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손상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은 PDF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제작하여 배포되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통계집 >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

담당 부서 <총괄>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담당자	연구원	최민주 (043-219-2961)
담당 부서 <협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성우 (02-3407-4057)
		담당자	부센터장	이태영 (02-3407-4058)
		담당자	연구원	서예지 (02-3407-4054)

